

광주·전남 상장사 빛 확 늘었다...부채비율 400% 넘어

34곳 지난해 부채 115조3764억...전년비 55% 급증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률 -42.24%로 32% 떨어져

지난해 광주와 전남 주식 상장기업들의 부채비율이 4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들은 매출이 늘었음에도 고금리와 국내외적 경기침체에 적자마져 크게 확대됐다.

18일 한국거래사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 12월 결산법인 2022년 결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상장기업 27개사의 부채총계는 115조3764억원으로, 지난해(74조4030억원)보다 55.07%(40조9735억원)이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무려 406.78%로, 전년(139.3%)보다 267.46%포인트나 급증했다. 이는 전국 코스닥 상장기업 부채비율(60.5%)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광주사무소는 광주·전남 12월 결산법인 37개사 가운데 코스피 14개사·코스닥 20개사 등 34개사 결산실적을 분석했다.

분석에서 제외된 법인은 금융업종인 우리금융과 분할·합병한 금호에이치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제이웨이 등 3곳이다.

부채비율을 비롯한 지역 상장기업들의 경영지표는 전년보다 크게 악화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매출액에 대한 영업 이익의 비율)은 -42.24%로, 전년(-10.14%)보다 32.08%포인트나 떨어졌다.

매출액 순이익률 역시 지난해 -7.59%에서 올해

-31.87%로, 1년 새 24.28%포인트 감소했다.

매출액은 79조5936억원으로, 전년보다(69조4431억원)보다 14.62% 증가했다.

시장별로 보면 지난해 상장사들의 매출액은 코스피에서 15.36% 증가하고 코스닥은 8.08%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전국 코스피 상장기업 매출 평균 증가율 21.34%(연결 기준·604개사)와 코스닥 증가율 14.9%(1383개사)를 크게 밑돌았다.

올해 지역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코스피 부문에서 33조5775억원, 코스닥에서 286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33조 60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순이익 부문에서도 코스피 25조3342억원 적자를 보고, 코스닥 상장사들도 32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전년보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16.7% 증가했다. 순이익은 코스피 0.67%·코스닥 5.6% 증가했다.

지역 상장기업들의 매출이 늘었음에도 적자 폭이

확대된 건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는 화학제품과 건설업종 등의 타격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고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도 한 몫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광주·전남 전체 상장사 매출액의 88.9%를 차지하는 한국전력을 제외하더라도 매출액은 전년 7조 5886억원에서 올해 8조6255억원으로, 13.62%(1조33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전력 매출은 68조9515억원으로, 지난해(59조6606억원)보다 15.57%(9조2909억원) 늘었다.

하지만 국제 유가 급등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이익(-33조9085억원)과 순이익(-25조2977억원) 적자가 확대됐다. 영업이익 적자는 지난해보다 26조4829억원 늘고, 순이익 적자는 19조6899억원 늘었다.

한전을 제외한 지역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지난해 성적 또한 좋지 못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3023억원으로 전년(3843억원)보다 21.34% 감소했다. 순이익은 지난해 688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흑자를 냈던 지난해(3348억원)보다 4000억 이상의 손실을 봤다.

지난해 지역 34개사 가운데 적자로 전환한 기업은 고려시멘트, 오이솔루션, 위니아 등 코스피 4개사였다.

금호타이어, 다이아믹디자인, 대우에이텍, 대우플러스, 보해양조, 한전, KPX생명과학, 대한그린파워, 박셀바이오, 상상인인터스트리, 애니젠, 파루 등은 적자로 지속됐다.

순이익 흑자를 실현한 기업은 총 18개사로, 다스코(코스닥), 피파잉(코스피) 등 2개사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광주·전남 상장기업 매출액의 큰 파이를 차지하는 한국전력이 큰 손실을 보면서 전체 영업이익과 순이익 적자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전, 日 정유사와 청정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약

이데미쯔와 정보 교류 강화...해의 공급망 구축 위한 선도적 지위 확보 노력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지난 14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일본 정유회사 이데미쯔와 '청정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찬혁 한전 신성장사업개발처장과 히로시 다나카 이데미쯔 탄소중립전략처장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청정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에 양사가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사는 MOU 체결을 계기로 해외 청정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 관련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청정 암모니아의 생산, 운송, 공급에 관한 전주기 공동 연구를 통해 협력가능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 제2의 정유회사인 이데미쯔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청정 암모니아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해외 청정 암모니아 생산기지 개발 및 조달을 위해 국내외 에너지기업과의 협업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있다.

한전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수소사업 선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 글로벌 개발사 및 에너지기업과 협업 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사 및 수소 관련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찬혁(왼쪽) 한전 신성장사업개발처장과 히로시 다나카 이데미쯔 탄소중립전략처장이 '청정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증서를 내보이고 있다. <한전 제공>



서광주농협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 배부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71.09(-4.82)
↓ 코스닥	909.02(-0.48)
↑ 금리(국고채 3년)	3.327(+0.040)
↑ 환율(USD)	1318.60(+7.50)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서광주농협(조합장 문병우)과 함께 지난 17일 서광주농협 하나로마트 동림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국민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고성신 본부장과 문병우 조합장 등 임직원 20명이 참여했으며, 마트를 찾은 고객과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문을 배부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농협은 주 고객층이 농업인과 서민들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금융사기에 취약하다. 이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종 금융사기수법 공유 및 대처 방법,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 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매년 4월과 9월에 실시하고 있다.

문병우 조합장은 "금융사기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협이 강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축협 장구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실적은 2020년(1198건, 200억원), 2021년(1699건, 307억원), 2022년(2265건, 283억원)으로 올 2월말 기준 163건에 14억원의 피해예방 성과를 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효성, 강릉 산불 구호성금 3억 기부

효성(회장 조현준·사진)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지역에 긴급 구호 성금 3억원을 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효성과 주요 사업 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이 그룹 차원에서 함께 마련했다.

효성의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강릉지역의 복구와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조현준 회장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피

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효성은 지난해 3월 동해안 산불과 같은 해 8월 중부지역 집중호우, 앞서 2020년 2월과 8월 코로나 19 및 집중호우 등 국가 재난 때마다 성금을 기부해오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시민 안전에 힘쓰는 해양에너지

광주시 노후보일러 교체사업 시공 담당

㈜해양에너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18일 ㈜해양에너지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공동배기구에서 막힌 현상이 발생했다. 해양에너지는 "아파트로 가스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공동배기구 내 이물질 막힌 현상으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역류하는 것을 발견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준공 30년 이 넘는 노후 아파트로 ㈜해양에너지는 내시경카메라를 투입, 공동배기구 내 이물질을 제거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진〉

광주시는 노후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의 양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일반가정 10만 원, 저소득층가정 60만원으로 약 1만6500세대를 지원한다.

㈜해양에너지는 지원사업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 공동배기구를 단독 배기형(FF타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과 가스보일



러 사용 시 누출된 일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경보기 설치도 병행하고 있다.

또 공동배기구 점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앞으로 공동배기구를 이용하는 노후아파트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시민의 안전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저꾸로' 귀뚜라미홀딩스 지주사 전환 뒤 잘나가네

지난해 1조2024억 매출 '사상 최대' ...영업이익 354억 43% ↑

귀뚜라미홀딩스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보일러 전문 업체를 넘어 냉난방 에너지그룹으로 거듭나고 있다.

(주)귀뚜라미홀딩스(대표 송경석)는 지난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한 이후 매출 1조2024억 원, 영업이익 354억 원의 사상 최대 실적(연결기준)을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글로벌 경제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심리 위축에도 전년 대비 매출 24%, 영업이익 43%의 성과를 냈다.

그들은 귀뚜라미그룹 내 주력 사업인 냉난방을 비롯, 에너지 계열사들의 고른 매출 성장세 덕에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냉방 계열사인 귀뚜라미는 '저꾸로 NEW 콘덴싱 L10 가스보일러', '저꾸로 ECO 콘덴싱 L11 가스보일러' 등 프리미엄 친환경 가스보일러 신상품과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귀뚜라미냉방냉방과 신성엔지니어링, 센추리

등 냉방 계열사 3곳도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

또 서울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귀뚜라미에너지는 선제적 안전관리와 고객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귀뚜라미홀딩스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각 사업 회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경기 악화에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계열사들의 기술혁신과 품질혁신을 지원해 종합 냉난방 에너지그룹으로서 내실을 탄탄하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귀뚜라미는 보일러 사업을 통해 지난 2001년 매출 30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냉방, 공기조화, 에너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보일러 전문업체를 넘어 종합 냉난방 에너지그룹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귀뚜라미그룹의 계열사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1조6000억 원, 영업이익은 940억 원에 달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